

# 1930년대 韓·日의 <歴史教科書> 비교 연구\*

-<천황>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張味京\*\*

(e-mail : mkjang1225@hanmail.net)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1. 일제가 중요시 여긴 천황 |
| 2. 근대 한·일 역사교과서 | 3.2. 조선과 천황        |
| 3. 교과서에 표상된 천황  | 4. 나가며             |

キーワード : 歴史教科書(History textbooks), 天皇(Emperor), 初等教科書(Elementary textbooks), 日帝強占期(Japanese colonial period), 植民地(Colony)

## 1. 들어가며

역사교과서는 역사인식을 통합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창출에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매체이다. 최근에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역사인식과 서술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우려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으로 그 역사적 연관성이 깊으며, 일제강점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왜곡의 시대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기이다.

일본을 형성한 근대사의 중심축은 천황이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과 권위를 집중시키고 내셔널리즘을 강조하였다. 신정부 최대의 과제였던 ‘국민통합’에, 皇國史觀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9029)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근현대문학 전공.

교육 코드의 포커스로 두었으며, 일본과 조선아동을 ‘臣民’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역사교과서가 동원되었다.

일본 천황제에 관한 문제는 일본 사회의 폐쇄적인 배타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2016년 5월 26일,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천황신화의 총본산인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첫번째로 선택한 것도 일본에서 천황의 존재감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천황의 존재가 전면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역사교과서에서 천황에 대한 경애심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천황제가 일본 내셔널리즘에서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30년대 조선은 <2차 조선교육령>에서 <3차 조선교육령>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전국 각지에 신사가 설립되었고, <내선일체론> <일선동조론> <창씨개명 강요>등 식민지 정책이 강변 일변도로 전환되었다. 일본에서도 만주침략 이후 황국사관에 의한 國體明徴이 강조되던 시기로 내선융화에 중점을 두고 교과서에 천황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가장 많이 등장시켰다. 천황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도록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때의 역사교과서에서 그 의도가 최대로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천황에 대한 연구는 한일관계의 연결 위주이거나 황실사, 메이지(明治)천황 등이 피상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대상의 교과서에 제시된 천황에 대한 연구 중 ‘구난희(2010) 「일제하 천황 인식 형성과 역사교과서의 천황서술-193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 유철(2012) 「일제강점기 일본어교과서에 나타난 천황상」 / 장미경(2017) 「일제강점기 초등교과서에 표상된 明治天皇」’등이 있는데 모두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만을 중심으로 하였다. 양국 교과서의 비교연구는 윤혜정(2008)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내용 비교」가 있는데 이것도 식민지 통치정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처럼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연구가 되어 있고, 양국 교과서의 비교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그 한계로 지적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일본과 한국(조선)에서 사용된 초등 역사교과서에서 ‘천황’이 어떻게 서술되었나를 비교, 분석하려 한다. 텍스트는 조선의 초등 역사교과서인 조선총독부 편찬 『普通學校國史(권1)』(1937) 『初等國史(권2)』(1938)와, 일본의 초등 역사교과서인 문부성 편찬 『尋常小學國史(上)』(1934) 『尋常小學國史(下)』(1934)이다. 조선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참고로 편찬되었기에 양 교과서 비교로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삭제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일본의 정신적 상징인 권력자를 역사교과서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까지 파악이 될 것이다.

## 2. 근대 한·일 역사교과서

일본은 1904년부터 국정교과서를 간행하였는데 당시의 편집자들이 1910년 이후 일제의 한국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고 식민사학에 깊이 개입하였다. 이렇게 식민사학자에 의해 역사교과서가 집필되었다는 사실과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일본 역사교과서를 참고로 편찬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역사교과서는 1920년에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上·下)가 발행되었지만, 문부성 편찬 『尋常小學國史』의 보충교재로 조선사(朝鮮史)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 역사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급변하는 시세를 반영한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역사교육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표1>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목록1)

교과서명	발행 연도	면수	收錄順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上卷	1920	43	緒言-目錄-부록(1.-신라.고구려.백제 年表) 2. 年表(천황)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下卷	1921	43	緒言-目錄-부록(1.이씨조선역대표)
普通學校國史(兒童用)上卷	1922	183	目錄-御歷代表(1)-本文-年表
普通學校國史(兒童用)下卷	1922	179	目錄-御歷代表(2)-本文-年表
普通學校國史 卷一	1932	170	目錄-御歷代表(1)-本文-年表
普通學校國史 卷二	1933	150	目錄-御歷代表(2)-本文-年表
普通學校國史 卷一 (5학년)	1937	191	目錄-御歷代表-本文-年表(神武天皇(1대) ~後奈良天皇(105대))
初等國史 卷二 (6학년)	1938	231	目錄-御歷代表-本文-年表(神武天皇(1대) ~昭和天皇(124대))
初等國史 第五學年	1940	242	目錄-御歷代表-本文-年表
初等國史 第六學年	1941	320	目錄-御歷代表-本文-年表

1) 음영부분은 본 연구 텍스트. 이하 <표 2>도 동일.

初等國史 第五學年	1944	242	만세일계(황실일계표)-本文-み代のすがた
初等國史 第六學年	1944	309	만세일계(황실일계표)-本文-み代のすがた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上)』(1920)년에는 ‘삼국시대연표’가,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下)』(1921)에는 ‘조선시대연표’가 수록되었다.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下)에만 천황 연표가 없었으며 그 외 모든 조선총독부 역사교과서에는 천황의 연표가 수록되었다. 시작과 마무리가 천황으로 구성되어 조선아동들에게 조선의 역사보다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 역사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에서 內地人(小學校)와 朝鮮人(普通學校)로 나뉘어 있던 학교 명칭이 소학교로 통합되었다. 여기에 새롭게 교과서 개편도 이루어져서 조선과 일본 명칭인 초등을 사용한 『初等國史』로 책명이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1903년 <소학교령>의 개정으로 문부성이 저작권으로 갖는 역사교과서는 7차례 개정을 거치며 1947년까지 유지되었다.

### <표2> 문부성 편찬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교과서명	발행연도	면수	收錄順
小學日本歷史 1	1904	148	目錄-本文-御歷代表(附錄)
小學日本歷史 2			
尋常小學日本歷史 1	1910	194	目錄-本文-御歷代表(附錄)
尋常小學日本歷史 2			
尋常小學國史 上	1921	336	目錄-御歷代表-本文-年表
尋常小學國史 下			
尋常小學國史 上 (5학년)	1934	394	目錄-御歷代表-本文-年表 (神武天皇(1대)~正親町天皇(106대)) (神武天皇(1대)~昭和天皇(124대))
尋常小學國史 下 (6학년)			
小學國史尋常科用 上	1940	372	目錄-神勅- 御歷代表-本文-地圖-年表
小學國史尋常科用 下			
初等科國史 上	1943	376	目錄-御歷代表-本文-地圖-年表
初等科國史 下			

양 교과서는 모두 <目錄-御歷代表-本文-年表>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도 순서만 바뀌었을 뿐 천황 중심으로 천황의 ‘御歷代表’는

전부 수록되어 있다. 텍스트의 끝부분에 있는 <年表>에서는 천황의 주요행적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年表> 내용의 비중으로 보면 『初等國史 卷二』에서는 메이지천황(67(항목))→쇼와(昭和)천황(20)→고메이(孝明)천황(18)→다이쇼(大正)천황(16)→고요제이(後陽成)천황(14)으로 되어 있다. 『尋常小學國史 下』에서는 메이지천황(51)→다이쇼천황(14)→고메이천황(13)→쇼와천황(9), 고요제이천황(9)으로 되어 있다. 연표 내용은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에서 더 큰 비중으로 나와 있다.

### 3. 교과서에 표상된 천황

일제강점기 역사교과서를 1920~30년대와 1940년대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는데, 1920~30년대의 ‘인물중심’에서 1940년부터는 전면적인 개정에 의해 ‘주제중심’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표3> 한·일 <역사교과서>에서 ‘천황’의 비중

5학년			6학년		
	『普通學校國史 卷一』	『尋常小學國史(上)』		『初等國史 卷二』	『尋常小學國史(下)』
1	天照大神	天照大神	31	織田信長	
2	神武天皇	神武天皇	32	豊臣秀吉	
3	日本武尊	日本武尊	33	豊臣秀吉(つゞき)	織田信長
4	神功皇后	神功皇后	34	徳川家康	豊臣秀吉
5	仁徳天皇	仁徳天皇	35	徳川家康(つゞき)	豊臣秀吉(つゞき)
6	聖徳太子	聖徳太子	36	徳川家光	徳川家康
7	天智天皇と藤原鎌足	天智天皇と藤原鎌足	37	徳川光圀	徳川家康(つゞき)
8	天智天皇と藤原鎌足(つゞき)	天智天皇と藤原鎌足(つゞき)	38	徳川吉宗	徳川家光
9	聖武天皇	聖武天皇	39	松平定信	• 後光明天皇
10	桓武天皇	• 和氣清麻呂	40	★尊王論	徳川光圀
11	最澄と空海	桓武天皇	41	攘夷と開港	• 大石良揚雄
12	菅原道眞	最澄と空海	42	攘夷と開港(つゞき)	• 新井白石
13	藤原道眞	菅原道眞	43	孝明天皇	• 徳川吉宗
14	後三條天皇	• 藤原氏の専横	44	★王政復古	松平定信
15	源義家	後三條天皇	45	明治天皇 1)明治維新 2)西南の役	• 本居宣長
16	平氏の勃興	源義家	46	明治天皇(つゞき) 1)憲法發布 2)明治二十七八年戰役	• 高山彦九郎と蒲生君平

17	平重盛	平氏の勃興	47	明治天皇(つゞき) 1)條約改正 2)明治三十七八年 戰役	攘夷と開港
18	武家政治の起	平重盛	48	明治天皇(つゞき) 1)韓國併合 2)天皇の崩御	攘夷と開港(つゞき)
19	後鳥羽上皇	武家政治の起	49	大正天皇	孝明天皇
20	★ 元寇	後鳥羽上皇	50	★ 昭和の大御代	• 武家政治の終
21	★ 元寇(つゞき)	• 北條時宗	51		明治天皇 1)明治維新2)西南の 役 3)憲法發布 4)明治二十七八年戰 役 5)條約改正 6)明治三十七八年戰 役 7)韓國併合8)天皇の 崩御
22	後醍醐天皇	後醍醐天皇	52		大正天皇
23	楠木正成	楠木正成	53		• 今上天皇の即位
24	新田義貞	新田義貞	54	6학년 교재에서 18개 동일단원	
			천 황 비 율	46% 메이지천황 제외하 면 41%	38% 메이지천황 제외하 면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는 문부성 편찬 &lt;역사교과서&gt;에만 있는 단 원</li> <li>★는 조선총독부 편찬 &lt;역사교과서&gt;에만 있 는 단원</li> </ul>		
25	北皇親房と楠木正行	北皇親房と楠木正行	음영이 진한 부분은 천황 및 황국사관과 직접 연관이 있다 여겨지는 단원임		
26	菊池武光	菊池武光			
27	足利氏の僭上	足利氏の僭上			
28	足利氏の衰微	足利氏の衰微			
29	足利氏の衰微(つゞき)	• 北條氏康			
30	後奈良天皇	• 上杉謙信と武田信玄			
31		• 毛利元就			
32		後奈良天皇	5학년 교재에서 25개가 동일단원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역사교과서의 목록이 거의 비슷하게 조선 역사교과서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목록 제목도 보면 인물 위주로 나와 있고, 『尋常小學國史(下)』의 ‘고코묘(後光明)천황’을 제외하고 동일 천황이 나왔다. 5학년 교재에서 25개가, 6학년 교재에서 18개 동일단원이 있고,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에서는 50개의 단원 중에 5개가, 문부성 편찬 교과서 54개 단원 중에서 15개가 추가되었다. 특히 6학년 대상의 교과서에서는 메이지천황, 다이

쇼천황, 쇼와천황의 치적으로 대부분 할애되었다.

조선총독부 편찬의 교과서에서 천황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이고, 문부성 편찬에서 천황이 차지하는 비율이 38%이다. 문부성 편찬의 교과서에서 비율이 낮은 것은 메이지천황을 한 단락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메이지천황을 제외하더라도 조선총독부 편찬에서는 41%. 문부성에서는 37%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천황의 제목으로 한 역사 전반의 교재계열이 만들어지고 이후 일본 소학교 역사교과서의 편집의 줄거리가 되어 있다.<sup>2)</sup> 천황의 이미지로 자국민의 정신을 제압해 나가다가 하면 그것을 식민지까지 적용하여 사상적 동화의 불가결한 이념 요건으로 삼았던 것이다.

### 3.1. 일제가 중요시 여긴 천황

<御歴代表>에 나온 124명의 천황 중에서 일제가 중점을 둔 천황은 (『尋常小學國史(下)』-54- 「國民の覺悟」)에 나타나 있다.

옛일을 되돌아보아도 맨 먼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는 감사하게도 신칙을 내리시어 우리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셨고, 그 뒤 진무천황(神武天皇)이 그 뜻을 받들어 처음으로 천황 지위에 오르셨다. 그 이후, 언제나 나라를 위해 크나큰 마음을 베푸시어 황송하게도, 어머니처럼 언제나 백성을 지켜주셨다. 가메야마(龜山)천황은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국난에 대처하여 싸우셨으며, 고메이(孝明)천황도, 오로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다. 또 닌토쿠(仁德)천황은, 손수 절약을 하시며, 백성을 가없이 여기셨고, 고나라(後奈良)천황은, 당신 몸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돌보셨다. 메이지천황이,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셨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황송할 따름이다.<sup>3)</sup>

2) 최서영(2008) 「일본에 있어서의 천황의 절대성과 현재」, 원광대학교 대학원, p.106

3) 遠い昔のことをふり返つて見ると、まづ天照大神は、かたじけない神勅(しんちよく)を下したまうて、わが国の基をお定めになり、その後、神武天皇が、その御旨をおうけつぎになつて、はじめて天皇の御位に即かせられた。それ以来、万世一系の天皇は、三種の神器を皇位の御しるしとして、万機をお統べになつて、絶えず国の為に大御心をかけさせられ、そののみか、もつたいなくも、慈母(じぼ)のやうな御なざりで、いつもいつも万民をおいつくしみ下さつたのである。かつて、龜山天皇は、御身をすてて国難に代らんとしたまひ、孝明天皇も、ひたすら国難を救はんことを祈らせられた。また仁徳天皇は、御みづから御節約になつて、人民をあはれみたまひ、後奈良天皇は、御身のお苦しみを忘れて、国民の身の上をお案じ下さつた。明治天皇が、照るにつけ、曇るにつけても民草をお思ひ下さつたことは、今更申すもかしこいきはみである。(『책명』-과- <단원명>이다. 인용 번역 필자. 이하 동일)

124명의 천황 중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진무천황, 가메야마천황, 고메이천황, 닌토쿠천황, 고나라천황, 메이지천황이 언급되었다. 가메야마천황을 제외하고는 양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위의 천황들을 중심으로 비교해 볼 것이다.

일본의 고대국가 확립기에 해당하는 7세기경에 탄생한 천황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지배권력은 자신들의 영속적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천손강림(天孫降臨)의 신화를 조작하였다.<sup>4)</sup> 연표 처음에 나오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황실의 조상신으로 일본 열도에 난립하고 있는 지방 신들을 굴복시키고, 후손인 니니기 노미코토(瓊瓊杵尊)에게 청동거울, 검, 구슬을 주어 열도로 보냈다.

천황폐하의 선조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 한다. 오미카미는 덕이 매우 깊으신 분으로, 처음으로 벼와 보리 등을 논밭에 심게 하고 누에를 치게 하여 모든 백성에게 베풀었다.<sup>5)</sup>

(『J(1)』-〈天照大神〉)(『K(1)』〈天照大神〉)

『심상소학국사』나 『보통학교국사』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서술되었으나 『심상소학국사』에서는 내용 끝에 <天照大神—天忍穗耳尊—瓊瓊杵尊—彦火火出見尊—鸕鷀草葺不合尊—神武天皇>의 연표가 첨부되어 있다. 당시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상의 계보도 신격화하였다. 하지만 『보통학교국사』에서는 이 연표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자세히 서술한 것은 ‘신에 의해 탄생한 나라’임을 강조하여 일제가 ‘신국이라는 자부심’과 ‘천황의 신성함’을 아동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sup>6)</sup>

일본의 초대천황이라 여기는 진무천황은 니니기 노미코토의 직계 후손으로, 건국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진무천황은 야마토 지역을 정복한 후 일본 열도에 난립해 있던 소국들을 통합하고, 천하를 평정한 뒤 우네비(畝傍)의 가시와라(橿原)에 도읍을 정하고 천황으로 즉위했다.

니니기 노미코토부터, 진무천황에 이르러서 휴가(日向) 지역<sup>7)</sup>으로 가서어, 우리나라를

4) 박진우(2011)『일본 천황제와 역사의식』, 계명사학 22집, p.74

5) 天皇陛下の御先祖を、天照大神と申しあげる。大神は御徳のたいそう高い御方で、はじめて稲や麦などを田畑にうゑさせたり、蚕をかはせたりして、万民をおめぐみになつた。(인용일 경우에 『普通学校国史 卷一』는 『K(1)』, 『初等国史 卷二』는 『K(2)』, 『尋常小学国史(上)』는 『J(1)』, 『尋常小学国史(下)』는 『J(2)』로 할 것이다.

6) 차유미(2015)『일제강점기 <國史>의 敍事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25

7) 현재 미야자키 현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설에는 가고시마현의 사즈마와 오스미지방도 포

다스리게 되었다. (중략) 천황은 궁을 우네비산(畝傍山)의 동남에 있는 가시와라(榎原)에 세웠으며, 처음으로 즉위의 예를 거행하셨다. 그 해를 우리나라의 기원 원년이라 말한다. 그리하여 2월 11일은 역시나 경사스러운 날이기에 국민은 모두 모여 그 날에 기원절(紀元節)의 축하를 하는 것이다.<sup>8)</sup> (『J(2)』-2-〈神武天皇〉)

진무천황은 니니기 노미코토부터 4대째의 분입니다. 천황 시절에 이르러서 휴가지역으로 가시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중략) 천황은 우네비산(畝傍山)의 동남에 있는 가시와라(榎原)에 궁을 세우게 되고, 처음으로 즉위의 예를 거행하게 되었다. 그 해를 우리나라의 기원 원년이라 말한다. 그리하여 2월 11일은 경사스런 날이기에 국민은 모두 모여 기원절의 축하를 하는 것이다.<sup>9)</sup> (『K(1)』-2-〈神武天皇〉)

두 교과서에서는 기원절에 대한 내용이 똑같았지만 『보통학교국사』에서는 “진무천황은 니니기 노미코토부터 4대째의 분입니다.”는 구절로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심상소학국사』에 나와 있는 <4대째의> 연표가 없었기에 4대째라는 언급으로 조선아동은 자연스럽게 아마테라스부터 진무천황까지 연결시켜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진무천황이 즉위했다는 2월 11일을 일본 건국일로 아동들에게 천황의 신성함을 강조하였다.

제16대 닌토쿠(仁德)천황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오호사자키노스메라미코토(大鷦鷯天皇)로, 『만요슈(万葉集)』에 나니와(難波)천황으로 나와 있다.

닌토쿠천황은 오진천황의 황자로 인정이 깊고, 늘 백성을 가없이 여겼다. 천황은 도읍을 나니와(오사카)로 정했지만, 황거는 매우 검소하게 지으셨다. 천황은 어느날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셨는데 마을의 부뚜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적었기 때문

함시켜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실제 지명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신화 속 가공의 지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8) 瓊瓊杵尊から神武天皇の御時にいたるまでは、御代々日向においでになつて、わが國をお治めになつた。(中略)天皇は、宮を畝傍山の東南にあたる榎原にお建てになり、はじめて御即位の禮をお擧げになつた。この年をわが國の紀元元年としてゐる。さうして、二月十一日は、またこのめでたい日にあたるので、國民はこぞつて、この日に紀元節のお祝をするのである。

9) 神武天皇は、瓊瓊杵尊から御四代めにあたる御方である。天皇の御時にいたるまでは、御代々日向においでになつて、わが國をお治めになつた。(中略)天皇は、宮を畝傍山(うねびやま)の東南にあたる榎原(かしはら)にお建てになり、はじめて御即位(ごそくる)の禮(れい)をお擧(あ)げになつた。この年をわが國の紀元元年としてゐる。さうして、二月十一日がこのめでたい日にあたるので、國民はこぞつて紀元節のお祝をするのである。

(밑줄 필자. 이하 동일)

에 아마도 흉작으로 먹을 것이 부족한 모양인가보다. 도시와 가까운 곳도 이러한데 도시에서 먼 마을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까, 측은하게 여기셔서 3년 간 납세를 면하게 하셨다. 그 때문에 황거는 점점 황폐해져 가는데 천황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으며, 식사도 새로운 것은 만들 수 없을 정도였다.<sup>10)</sup>

(『J(1)』-5-〈仁德天皇〉) (『K(1)』-5-〈仁德天皇〉)

닌토쿠천황도 두 나라 역사교과서에 똑같이 ‘검약하는 천황’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천황’으로, 인간적인 면에 중시되어 서술되었다. 성제(聖帝)라고도 불린 닌토쿠천황이 가난한 백성을 가엾게 여겨 몸소 검소한 생활을 했음을 알려줌으로써 천황에 대한 은혜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있다.

고나라(後奈良)천황도 두 교과서에서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빈곤한 환경에서도 내색도 안하고 백성들만 염려하셨다는 仁政을 강조하였다.

고나라천황 시대에 조정은 유난히도 쇠락하였기에 궁의 축대가 무너졌어도 고칠 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이었기에 송구스럽게도 천황의 드실 것도 부자유스러웠던 경우가 종종 있다 하신다. 그래도 천황은 이처럼 빈궁한 가운데에도 검약하시어 오랫동안 낡은 것들을 다시 사용하셨다. (중략) 천황 자신의 괴로움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한마음으로 백성에게 은덕을 내리시자 그 인덕에 감사하여 누구라도 울지 않은 자가 없었다.<sup>11)</sup>

(『J(1)』-32-〈後奈良天皇〉)

고나라천황이 즉위하였을 때는 조정의 재정이 너무나 곤란하였기에 황송하옵게도 즉위의 예식조차 오랫동안 거행할 수 없었다. (중략) 천황이 몸이 불편함에도 조금도 개의

10) 仁德天皇は應神天皇の御子で、御なさけ深く、いつも人民をおあはれみになつた。天皇は、都を難波におさだめになつたが、皇居はいたつてしつそな御つくりであつた。天皇は、ある日、高い御殿におのぼりになり、四方をおながめになると、村々から立ちのぼるかまどの煙が少かつたので、これは、きつと不作で食物が足りないためであらう。都に近いところできへこんな有様であるから、都を遠くはなれた國々の人民はどんなに苦しんでゐることだらうと、ふびんにお思いになり、三年の間は税ををさめなくてよいとおほせ出された。そのため、皇居はだんだんあれてきたが、天皇は少しも御氣にもおかけにならず、御召しものさへ新しくおつくりになることもなかつたくらゐである。

11) 後奈良天皇の御代には、朝廷は取分け衰へてゐられたので、御所の築地が破れても、これをつくろふことが出來ず。かういふ御有様であるから、おそれ多くも、天皇の毎日の御用さへ御不自由なことが、たびたびであつたといふ。けれども、天皇は、このやうに乏しい御費用の中からもなほ御儉約なさつて、長い間すたれてゐた朝廷の御儀式を御再興になつた。(中略) 天皇が、御身のお苦しみを少しも御心につけられず、ただ一心に萬民をおめぐみくださつた御仁德のかたじけなさには、一人でも感泣しないものがあらうか。

치 앓으시고 오직 한마음으로 백성에게 은덕을 내리시자 그 인덕에 감사하여 누구라도  
울지 않은 자가 없었다.<sup>12)</sup> (『K(1)』-30-〈後奈良天皇〉)

당시 황실의 가난은 극에 달하였기에 천황은 10년 후에 공식적인 대관식을 겨우 수행할 수 있었다. 내란의 연속으로 무사계급의 전국지배로 천황의 권위는 자연히 상실하였고, 특히 에도시기에는 천황의 정치활동을 더욱 금지시키게 된다.

고메이(孝明)천황은 121대 천황으로 메이지천황의 아버지이다. 재위하는 동안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徳川家慶)가 섭정하였고,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徳川家定)와 나카야마 다다야스(中山忠能)가 대리청정 하였기에, 1865년부터 1867년 붕어할 때까지 친정하였다. 고메이천황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조정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양이에 대한 의사도 강하게 내비쳤다. 막부 말기에 이르러 천황 및 조정의 정치적 지위는 외관상으로는 급속히 높아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막부나 여러 번과 公家·지사들의 권력 쟁탈전에 말려들면서 정작 고메이천황의 권위는 크지 않았다.

천황은 젊은 나이에 즉위하셨으나 내외적으로 일이 많았기에 밤낮으로 심려하셨고 느긋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외교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을 때에 칙사를 이세에 파견하시고, 천황이 손수 쓴 글을 신궁에 바치시고, 국난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칙사가 교토(京都)에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에 뜰에 나가시어 신궁을 요배하였다. 당시, 황실 비용도 부족하여서 대단히 힘들었어도, 천황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고 언제나 백성을 가엾이 여기셨다. 국민도 또 모두 천황의 덕을 우러러 바쳤기에 조정의 위광은 날로 더해갔다. 이리하여 역시 정권이 조정으로 돌아오는 기운이 열리게 된 것이다.<sup>13)</sup>

(『J(2)』-49-〈孝明天皇〉)

12)後奈良天皇の御位に、お即きになった頃は、朝廷の御財政が御困難であったから、おそれ多くも、即位の禮さへ、久しくお擧げになることが出来なかつた。(中略)天皇が、御身のお苦しみを少しも御心におかけにならないで、ただ一心に萬民をおめぐみくださった御仁徳のかたじけなきには、一人でも感泣しないものがあらうか。

13)天皇は、お若い御身で御位にお即きになり、しかも内外とも事の多い折であつたので、日夜大御心をおいためになつて、少しもおくつろぎになるおひまがなかつた。かつて外交の問題で世の中が騒がしかつた時には、勅使を伊勢におつかはしになり、宸筆の願文を神宮にたてまつつて、國難を救ふやうにお祈りになり、勅使が京都に歸るまで、毎夜を庭にお出ましになつて、神宮を御遙拝になつた。當時、皇室の御費用は乏しくて、たいそう御不自由でいらつしやつたが、天皇は少しも御氣にかけられず、いつも萬民をおあはれみ下さつた。國民もまた、皆天皇の御徳をあふぎたてまつつたので、朝廷の御威光は、毎年に増していつた。さうして、やがて政權が朝廷にかへる氣運が開けたのである。

고메이천황은, 어렸을 때부터 강직하셨고 17세에 즉위하셨다. 평소에도 조정의 위세가 없는 것을 탄식하셨고, (중략) 천황은 내외적으로 일이 많은 시기에 보위에 오르셨기에 밤낮으로 심려하셨으며 조금도 느긋하게 쉴 수가 없었다. 천황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고 언제나 만민을 가없이 여기셨다. 당시, 황실 비용도 부족하여서 대단히 힘들었어도, 천황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고 언제나 만민을 가없이 여기셨다. 국민도 또 모두 천황의 덕을 우러러 바쳤기에 조정의 위광은 매년 늘어났다.<sup>14)</sup>

(『K(2)』-43-〈孝明天皇〉)

고메이천황은 1866년, 재위 21년 만에 사망하였다. 사인은 천연두(天然痘)로 진단되었으나 완쾌되는 과정에서 급사했다.<sup>15)</sup> 정치적인 실권은 상실한 천황이었지만 당시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였기에 권위가 급격하게 상승되었다. 메이지유신으로 왕정복고로 돌아가자 『심상소학국사』에서는 드디어 정권이 막부에서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한 천황으로, 『보통학교국사』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보위에 오르셨지만 백성을 먼저 우선시하는 천황으로 묘사 되었다. 260여 년 간의 에도막부를 종식시키는 가장 큰 명분은 왕정복귀였기에, 조선아동보다 일본아동에게 존왕양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었다.

고메이천황의 아들 메이지천황은 양 교과서의 뒷부분을 대부분 차지하였다.

메이지천황은 고메이천황의 둘째아들로 1852년에 태어났다. 천황은 태어날 때부터 현명하고 강직하신 분이셨다. 어렸을 때 아버지인 천황을 따라 교토 부근의 부대에서, 병사 훈련을 관람하셨던 적이 있었다. 대포와 소총이 심하게 쏘아대는 소리가 번개가 한꺼번에 치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사람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천황은 평소처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병사들의 훈련을 열심히 관람하고 계셨다.<sup>16)</sup>

14) 孝明天皇は、御生まれつき剛毅であらせられ、御年十七で御位にお即きになつた。日頃、朝廷の御威光が振るはないのをおなげきになり、(中略) 天皇は、内外とも事の多い折に御位にあらせられたので、日夜大御心をおいためになつて、少しもおくろつろぎになるおひまがなかつた。また、當時、皇室の御費用は乏しくて、大そう御不自由でいらつしやつたが、天皇は少しも御氣にかけさせられないで、いつも萬民をおあはれみ下さつた。國民もまた、皆、天皇の御徳をあふぎたてまつつたので、朝廷の御威光は、毎年に増していつた。

15)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그 후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이토 히로부미의 15개 죄목의 15번째 항목은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태왕을 죽인 죄>이다. 이는 일본의 메이지유신파가 유신에 비협조적인 고메이천황을 살해하고 어린 메이지천황을 이용해 유신을 펼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16) 明治天皇は孝明天皇の第二の皇子であらせられ、嘉永(かえい)五年にお生まれになつた。天

(『J(2)』-51-〈明治天皇〉)

메이지천황은 고메이천황의 둘째아들로, 1852년에 태어나셨으며, 대단히 현명하시고 강직 하셨습니다. (중략) 불과 16세에 천황 자리에 오르셨으나 머지않아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大政奉還을 허락하시어 이어 왕정복고를 이루시어 친히 천하를 통치하게 되셨던 것이다.<sup>17)</sup>

(『K(2)』-45-〈明治天皇〉)

메이지천황은 『초등국사』에서는 4단원에 8개의 항목으로, 전체에서 6%를, 『심상소학국사』에서는 1단원이지만 『초등국사』와 마찬가지로 8개의 항목으로 11%를 차지하였다. 조선아동에게는 고메이천황과 마찬가지로 메이지천황의 즉위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와 영특함과 강건함을 인식시켰다. 메이지천황의 결단력과 담대력으로 일본이 군국주의로 발전되었음을, 일본이 입헌군주국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임을 신민이 될 아동들에게 강조했던 것이다.

### 3.2. 조선과 천황

천황은 조선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조선과의 관련 역사에서 일본아동들은 조선에 대한 인식이, 조선아동들은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과 관련된 천황의 비교이다.

<표4> 5학년 대상의 한일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조선과 관련된 천황

단락	『普通學校國史卷一』	『尋常小學國史(上)』	내용
4	神功皇后	神功皇后	
6	聖德太子	聖德太子	
7	天智天皇と藤原鎌足	天智天皇と藤原鎌足	고료쿠(皇極)천황 때 三韓에서 공물을 바쳤다.

皇は、お生まれつき英明剛毅な御方でいらつしやつた。まだ幼い御時、御父の天皇に従つて、京都御所の日の御門(ごもん)で、藩兵の演習(えんしふ)を御らんになることがあつた。大砲や小銃の音がはげしく、まるで百雷が一度に落ちるかと思はれるくらゐで、人々はたゞ身ふるひして恐れてゐた。ところが、天皇は、ふだんの通り、御顔の色さへおかへにならず、諸兵の運動を、しじゆう御熱心に御らんになつたといふことである。

17)明治天皇は、孝明天皇の第二皇子として、嘉永(かえい)五年に御誕生あそばされ、大そう英明剛毅でいらっしゃつた。(中略) 御年わづかに十六で踐祚あらせられたが、まもなく、徳川慶喜の大政奉還をお許しになり、ひきつづいて王政復古をおほせ出され、したしく天下の大政をお統べになることとなつた。

8	天智天皇	天智天皇	
21	龜山天皇		몽고침입에 고메이천황이 쓰시마와 조선 공략
28	長慶天皇		정몽주가 사신으로 일본에 와서 천황을 만남

5학년 대상의 교과서에서는 神功皇后, 쇼토쿠태자, 고쿄쿠천황, 덴지(天智)천황이 조선과 교류가 있던 천황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神功皇后는 오진천황(応神天皇)을 임신한 채로 출병하여 신라를 정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아이(仲哀)天皇條』에서는 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벌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sup>18)</sup> 신라왕은 일본군이 도착하자 스스로 결박하여 항복하였으며, 말과 마구를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다 한다.

그즈음, 조선에는 新羅·百濟·高句麗의 三國이 있었는데 그것을 三韓이라 한다. (중략) 신라왕은 겁을 먹고 “나는 요즘 동쪽에 일본이라는 神國이 있어 천황이라는 분이 있다고 들었다. 지금 공격해 오는 것은 반드시 일본의 병사가 아니겠는가. 그러하다면 어찌 막을 수 있으랴.” 하며 백기를 들어 항복하고 황후 앞에 나가 “비록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 해도 결코 매년 공물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이윽고 황후는 이기게 되었고 百濟·高句麗의 두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르게 되었다.<sup>19)</sup>

(『J(1)』-4-〈神功皇后〉)

황후는 다게우치노스쿠네와 상의하여, 친히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정복하게 되었다. (중략) 高麗·百濟·新羅를 합하여 삼국이라 부르고 또는 三韓이라고도 한다. 또 백제와 신라 사이에 任那라는 나라가 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일찍이 任那를 따르고 있었기에 百濟와 新羅와의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왕래가 있었다. 또한 瓠公처럼 신라에서 와서 공을 세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신라 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

18) 노성환(1999) 『古事記』, 도서출판 예진. p.1

19) この頃、朝鮮には新羅・百濟・高麗の三國があつて、これを三韓といつた。(中略) 新羅王は非常に恐れて、「われは、日頃東の方に日本といふ神國があつて、天皇と申す御方がいらっしやると開いてゐる。今、攻めて來たのは、きつと日本の神兵にちがひない。さうとすれば、どうしてふせぐことが出來よう。」といつて、すぐ白旗をあげて降参し、皇后の御前に來て、「たとひ太陽が西から出、川の水がさかさまに流れるやうなことがあつても、決して毎年の貢はおこたひしません。」とおちかひ申しあげた。ほどなく皇后は御凱旋になつたが、その後、百濟・高麗の二國もまたわが國に従つた。

처럼 朝廷을 따라오는 사람도 많았다. 아메노히보코의 자손은 대대로 조정에 충성을 다했다. 神功皇后의 어머니도 그 자손 중의 하나이다.<sup>20)</sup> (『K(1)』4 -<神功皇后>)

신라 정복 이유와 신라왕의 복종에 대한 서술은 같았지만 『보통학교국사』에서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任那라는 나라가 있었고, 일본과 任那의 끊임없는 왕래 내용이 추가되었다. 瓠公처럼 신라에서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神功皇后의 어머니도 신라 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의 자손 중 하나라는 것이 첨가되었다. 삼한정벌설은 왜곡된 것이라는 논란이 많지만,<sup>21)</sup> 조선아동에게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강조하여 한국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시켰다. 『古事記』에서도

황후는 모든 것이 신이 가르쳐준 대로 군사를 정비했는데 배를 가지런히 하여 바다를 건널 때, (중략) 배들을 바치고 있던 파도는 신라의 땅으로 밀려 들어가더니 국토의 반 정도를 잠기우고 말았다. 이를 본 신라 국왕은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부터 천황의 명에 따라 사육하는 자가 되어 해마다 배를 정렬하여 배 안을 비우는 일 없이, 샷대나 배의 키를 밀리는 일 없이 하늘과 땅이 계속 있는 한, 끊이지 않고 공물을 바치겠나이다.”<sup>22)</sup>

신라왕이 일본을 ‘신국’으로 여겨, 즉시 항복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신의 가호 아래 존재하는 우월한 나라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쇼토쿠태자(聖德太子)는 33대 천황인 스이코(推古) 천황의 섭정으로 일본에 불교를 보급시키고, 관료제의 기초를 세워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한 인물이다.

太子의 할아버지이신 긴메이(欽明)천황 시절에 불교가 처음으로 백제로부터 전해져 왔

20) 皇后は、武内宿禰と御相談になり、御みづから兵をひきゐて、新羅をお討ちになることになつた。(中略) 高麗・百濟・新羅はあはせて三國と呼ばれ、また三韓ともいはれる。また百濟・新羅の間には、任那(みまな)の國があつた。さうして朝廷は、はやくから任那をお從へになつてゐたので、百濟や新羅との間にも、しきりに往來があつた。從つて瓠公(ここう)のやうに、新羅に渡つて、大そうてがらを立てて、重く用ひられた人もあれば、新羅の王子(おうし)天日槍(あめのひぼこ)のやうに、朝廷をしたつて來る人々も多かつた。天日槍の子孫は、代々朝廷につかへて忠義をつくした。神功皇后の御母も、その子孫の御一人である。

21) 메이지 시대에 그려진 삼한정벌도 속 신라왕은 파사 이사금인데, 神功皇后와 파사 이사금은 살던 시대를 비교했을 때 서로 만날 수 없는 인물이었던 점을 보아도 삼한 정벌설은 왜곡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노성환(1990), 『古事記』, 도서출판 예진, p.182

다. 태자는 깊은 신앙으로 하여 많은 절을 세우게 하고, 또 친히 설법을 열심히 하셨기에 불교는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sup>23)</sup> (『J(1)』-6-〈聖德太子〉)

태자의 할아버지 긴메이천황 시절에 불교가 백제에서 왔다. (중략) 고구려에서 온 승려 惠慈의 가르침을 받아 많은 절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친히 설법을 하시어 열심히 진력하셨다.<sup>24)</sup> (『K(1)』-제 6 -〈聖德太子〉)

『보통학교국사』에서는 고구려의 승려 惠慈의 가르침에 불교가 더욱 융성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한일 간에는 오래전부터 문화의 교류가 있는, 역사가 깊었음을 설명했던 것이다.

덴지천황은 일본의 38대 천황으로 쇼토쿠태자 사후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소가씨 일행을 타도하고 천황가가 일본을 직접 통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천황은 군사를 내어 구원하려 했으나 운이 나쁘게 우리 군이 졌기 때문에 백제는 역시 멸망해 버렸다.<sup>25)</sup> (『J(1)』-6-〈天智天皇と藤原鎌足〉)

천황은 국왕의 신분으로 조정을 섬기고 있던 백제의 왕자 호쇼(豐璋)을 보내어, 백제를 도와 주었다. 그러나 그 보람도 없이 백제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sup>26)</sup>

(『K(1)』-8-〈天智天皇と藤原鎌足〉)

덴지천황 때의 부여와의 교류에 대하여 나왔다. 서술 내용은 달랐지만 천황의 보살핌에도 보람도 없이 결국 백제가 멸망했다는 내용은 비슷하였다. 이처럼 조선과의 천황과의 연결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까지 주로 나왔으

23) 太子の御祖父でいらつしやる欽明(きんめい) 天皇の御代に、佛教がはじめて百濟から傳はつて來た。太子は、深くこれを信仰して、多くの寺をお建てになつたり、またしたしく教をお説きになつたりして、熱心に御力をつくされたので、これから佛教はだんだん國內にひろまつた。

24) 太子の御祖父欽明(きんめい) 天皇の御代に、佛教が百濟から傳はつて來た。(中略) 高麗から來た僧惠慈の教を受け、多くの寺をお建てになつたり、またしたしく教をお説きになつたりして、熱心に御力をおつくしになつた。

25) 天皇は兵を出して百濟をすくはさせられたが、運わるく、わが軍が戰にまけたので、百濟はやがてほろびてしまつた。

26) 天皇は、國王の身代りとして朝廷に仕へてゐた百濟の王子豐璋を送りかへし、軍を出して百濟をおすくはせになつた。ところが、そのかひもなく、百濟はすっかりほろぼされてしまつた。

며, 일본은 조선을 도와주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었으며, 삼국은 도움을 받으며 공물을 바치는 나라로 시종일관 서술되었다. 이후 거의 연관 내용이 없었다.

<표5> 6학년 대상의 한일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조선과 관련된 천황

단락	『初等國史 卷二』	단락	『尋常小學國史(下)』
45	<韓國併合> 1)明治維新 2)西南の役	51	明治天皇 1)明治維新 2)西南の役 3)憲法發布 4)明治二十七八年戰役 5)條約改正 6)明治三十七八年戰役 7)韓國併合 8)天皇の崩御
46	明治天皇(つゞき) 1)憲法發布 2)明治二十七八年戰役		
47	明治天皇(つゞき) 1)條約改正 2)明治三十七八年戰役		
48	明治天皇(つゞき) 1)韓國併合 2)天皇の崩御		

조선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언급된 천황은 역시 메이지천황으로 『初等國史 卷二』의 경우에는 총 208쪽 중에서 68쪽이나 차지하였으며 역시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부각되었다.<sup>27)</sup>

한국황제는 통치권을 천황에게 양도하고, 제국의 새로운 정치에 의해 국민들에게 더욱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희망하여 천황은 또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1910년 8월에 드디어 한국을 병합시켰다.<sup>28)</sup> (『J(1)』-51-<韓國併合>)

한국황제는, 모든 통치권을 천황에게 양도하여,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으시고, 천황도 전부터 한국이 평화롭지 않음을 대단히 괴로워하셨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1910년 8월에 한국을 우리나라에 병합시켜 조칙을 내리시어 천하에 선포하셨다.<sup>29)</sup> (『K(1)』-48-<韓國併合> )

27) 장미경(2017)『일제강점기 초등교과서에 표상된 明治天皇』, 『일어일문학 제7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294

28) 韓國皇帝は、統治の權を天皇にお譲り申しあげ、帝國の新しい政治によつて、國民をますます幸福にさせたいとお望みになり、天皇もまた、その必要をおみとめになつて、四十三年八月に、とうとう韓國を併合せられた。

29) 韓國皇帝は、いつさいの統治權を天皇にお譲り申しあげ、國民をますます幸福にさせたいとお望みになつたり、天皇もかねがね韓國がおだやかでないので、たいへん大御心をなやましていらつしやうから、その御申出をもつとも思召して、これをお受けあそばすことにし、紀元二千五百七十年八月に、韓國をわが國に御併合になり、大詔を下して、天下にお宣べになつた。

한일병합을 강제가 아닌 한국인과 한국 황제의 요청에 의해 제안을 받아들여, 마음이 넓으신 천황이 수락을 했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특히 조선 아동에게는 한국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단히 괴로워하셨다”는 뜻으로 천황의 애민정신을 주입시켰던 것이다. 조선의 통치권 양보에 대한 언급에서도 양 교과서에 “모든 통치권을 양보”했다는 식으로 조선에 대한 모든 권한은 메이지천황에게 있다는 것으로 인식시킨 것이다.

## 4. 나가며

1930년대 조선은 식민지 정책이 강변 일변도로 전환되었으며, 일본에서도 황국사관에 의한 國體明徵이 강조되던 시기로 이때의 역사교과서에서 그 의도가 최대로 부각되었다. 메이지정부는 최대의 과제였던 ‘국민통합’에 皇國史觀을 교육 코드로 두고 일본과 조선아동을 ‘臣民’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역사교과서가 동원되었다.

조선총독부 편찬 역사교과서는 일본 아동용의 문부성 편찬의 역사교과서 전문을 수록하고 거기에 한국사를 약간 부가하였는데 대부분이 일본사 부분이였다. 이 당시는 단원명이 ‘인물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이 되는 인물은 주로 ‘천황’이었다.

일본 근대사의 최대 연출자이며 중심축은 천황으로, 본 텍스트인 교과서들을 보더라도 <目錄-御歷代表-本文-年表>의 천황으로 시작하여 천황으로 마무리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천황의 부분은 『尋常小學國史(下)』의 ‘고코묘(後光明)천황’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대로 옮겨왔다.

교과서의 <御歷代表>에 나온 천황은 124명의 천황 중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진무천황, 가게야마천황, 고메이천황, 닌토쿠천황, 고나라천황, 메이지천황이 중요한 천황으로 仁政을 행한 획일화된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중세에는 전략의 연속이었고, 막부의 권력에 의해 상징적으로 존재였기에 역사교과서에서는 천황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다.

조선과 천황의 연결은 주로 양 교과서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까지가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선총독부 교과서에서는 ‘임나인본부설’

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일선동조론의 식민사관을 일제의 내선일체의 역사적 방편으로 이용하여, 삼한시절부터 순종적으로 복종해 왔다고 서술함으로 <한일합방>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조선아동은 옛날부터 외국의 속국으로 자립할 수 없는 나라에 살기에 더욱더 일본 신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메이지천황은 양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천황의 권력과 권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상하였다. 역사교과서 편찬배경과 학습목표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메이지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편찬되어 <年表> 내용까지도 메이지천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역사 교과서에서 천황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이고, 문부성 편찬에서 천황이 차지하는 비율이 38%이다. 특히 메이지천황은 양국의 6학년 대상 교과서에 나오는데 교재의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1930년대의 한일 역사교과서는 서술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올바른 역사 이전에, 천황가의 역사중심으로 기록된 ‘천황역대사’에 가깝다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순전 외(2012) 『식민지 조선 만들기』, 제이앤씨, p. 399  
 노성환(1999) 『古事記』, 도서출판 예진, p.1. pp.36-37  
 도널드킨.지음. 김유동 옮김(2002) 『明治天皇』, 다락원, p. 361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이규원 옮김(2005) 『천황과 도쿄대』, 청어람미디어, p. 14  
 박진우(2011) 「일본 천황제와 역사의식」, 『啓明史學 22집』, 啓明史學會, p.72  
 장미경(2017) 「일제강점기 초등교과서에 표상된 明治天皇」, 『일어일문학 제 7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294  
 차유미(2016) 「일제강점기 <國史>의 敘事 고찰」--『普通學校國史』와 『初等國史』를 중심으로  
 최서영(2008) 「일본에 있어서의 천황의 절대성과 현재」, 원광대학교 대학원, p.106

논문 투고 일자 : 2017. 11. 3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

 <要旨>
 

---

## 1930年代の韓国・日本の&lt;歴史教科書&gt;比較研究

## - &lt;天皇&gt;記述を中心に -

張味京

日帝強占期の初等歴史教科書は1920～30年代の「人物中心」で1940年から全面的な改正により「テーマ中心」で構成された。日本の歴史教科書のリストがほとんど朝鮮歴史教科書で構成された。教科書では、124人の天皇の中で天照大神、神武天皇、龜山天皇、孝明天皇、仁徳天皇、後奈良天皇、明治天皇が述べられた。最も多く言及された天皇は明治天皇である。5学年の教科書では、神功皇后、聖徳太子、皇極天皇、天智天皇が朝鮮との交流があった天皇に出ている。朝鮮との天皇との接続は、主に高句麗、百濟、新羅の三国時代までが占めていた。朝鮮総督府編纂の教科書で天皇が占める割合が46%であり、文部省編纂の教科書で天皇が占める割合が38%である。1930年代の日韓歴史教科書は、叙述に若干の違いはあったが、正しい歴史の前に、天皇家の歴史的な中心部に記録された「天皇歴史」に近いと言えよう。

## A Comparison of Korea history textbooks and Japanese history textbooks in the 1930's -Centering on statements of Japanese emperors-

Jang, Mi-Kyong

Much of Japan's modern history centers around the figure of the emperor, who was considered to be the greatest director. Throughout Japanese history, there have been 124 emperors. Among these, history books often mention Amaterasu Omikami, Emperor Jimmu, Emperor Kameyama, Emperor GoMee, Emperor Nintoku, Emperor Go Nara, and Emperor Meiji (who appears the most frequently). Fifth grade textbooks discuss Emperor Jingu, Emperor Shotoku, Emperor Gokyo, and Emperor Tenji in the Emperor, where there was an exchange with Chosun. The connection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the emperor is explored through a discussion of the three nations of Koguryo, Baekje, and Silla. The ratio of the emperor to the textbook is 46% in the Chosun Governor-General's history textbook and 38% in the Ministry of History textbook. In the 1930s, Korean and Japanese history textbooks differed in some narratives, but both are similar to the History Books for the Emperor recorded to commemorate the emperor as the historical center of the nation.